

# 경제 동향

- 요약
- 경기 생산/출하/재고/소비
- 고용 취업자/실업자/물가
- 금융 시중자금사정/창업동향/어음부도율  
신용보증동향/수출입동향
- 부동산 건설경기/주택가격

|  |   |
|--|---|
| <p>경기</p>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의 산업생산 감소폭 축소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4.2%가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11.6% 감소하여 미미하나 서울의 산업생산 여건이 호전됨을 보임</li> </ul> </li> <li>○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큰 폭 증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연말 정기세일에 따른 의복 및 가방, 운동관련 상품의 수요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22.2% 증가한 1조 4천만 원을 기록함</li> </ul> </li> </ul>  |
| <p>고용</p>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의 실업률 지난 12월에 비해 증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의 실업률은 지난 12월에 비해 0.3%p 증가한 4.9%로 전국 보다 1.2%p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서울의 주요 산업인 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에서 기인함</li> </ul> </li> <li>○ 서울의 취업자소폭 감소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의 취업자는 4,897천명으로 지난 12월에 비해 0.8% 감소하였으나 청년층(15~29세) 취업자는 지난 12월에 비해 0.8% 증가한 1,115천명으로 고용여건이 소폭 개선됨</li> </ul> </li> <li>○ 소비자물가 상승세 지속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환파와 설수요의 영향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오르고 도시가스와 전기료의 인상으로 인해 지난 12월에 비해 0.7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</li> </ul> </li> </ul>  |
| <p>금융</p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월중 금리 하락추세 지속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 경기지표 호조, 미국 시장금리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하락, 장기투자기관의 적극적인 매수 등에 기인하여 2006년 1월 중 국고채(3년) 유통수익률 0.16%p 하락한 4.92%를 기록함. 2월 현재(02.22) 4.82%를 기록하여 하락세 지속됨</li> </ul> </li> <li>○ KOSPI는 2006년 1월 16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KOSPI는 1월 중순경 마일 증시 하락, 유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급락하였다가 국내주가의 저가인식에 따른 외국인의 큰 폭 순매수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반등하여 20.46% 상승한 1,399.83 기록함</li> </ul> </li> <li>○ 원/달러 환율 2005년 11월 이후 급락 폭 꾸준히 확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원/달러 환율은 엔/달러환율 하락, 수출네고자금 출회, 역외거래자의 매도세 등으로 지난 12월 대비 4.6% 감소하여 2006년 1월 종가기준 964.60원을 기록함</li> </ul> </li> <li>○ 서울의 신설법인 수 증가세 지속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5년 12월 중 신설법인 수는 지난 11월 대비 10.2% 증가한 1,711개소로 이는 건설 및 설비업이 큰 폭으로 상승한 데 기인함</li> </ul> </li> </ul> |
| <p>부동산</p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증가 폭 둔화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5년 12월 중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12월 대비 8.5%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립과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으나,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부진으로 증가폭은 둔화됨</li> </ul> </li> <li>○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6년 1월 중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12월 대비 0.6%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주 요인으로 풀이됨</li> </ul> </li> </ul>   |

## | 생 · 산 |

## 서울 산업생산 감소폭 축소 지속

## ■ 전국 산업생산 증가세 지속

- 전국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11.3% 증가를 보여 10월 이후 10%대의 증가를 유지함
- 그 주된 요인으로는 반도체·IT, 자동차 부문의 생산 증가세가 지난해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생산의 호조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됨
- 세부업종별로 반도체(47.9%), 자동차(8.5%), 영상·음향·통신(12.5%)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사무회계용기계(-16.7%), 비금속광물(-13.0%) 등은 감소함

## ■ 서울 산업생산 감소폭 축소 지속

- 서울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4.2% 감소를 나타내 전국과는 달리 11개월 연속 마이너스의 증가를 보이나 그 폭이 지속적으로 감소됨
- 서울 산업생산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서울의 산업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 공장의 지방 이전과 쇼팅(쿵기름) 제조 공장의 지방 이전으로 인한 생산 감소로 분석할 수 있음
- 반면에 금값 상승에 따라 귀금속장신구를 포함하는 가구 및 기타제품 부문의 증가와 의복 및 모피, 섬유제품과 같은 겨울용품 증가로 감소폭 완화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

## ■ 서울 경공업 산업생산 큰 폭으로 증가

-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12월보다 25.8% 감소하여 30%대의 감소세를 벗어남
- 세부업종별로 영상음향통신 및 통신장비(-56.0%), 고무 및 플라스틱(-12.2.0%) 등이 하락한 반면, 기타기계 및 장비(7.9%) 등이 증가함
-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12월보다 8.1%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어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를 유지함
- 세부업종별로는 의복 및 모피(24.8%) 섬유제품(14.9%)이 증가하고, 음식료품(-25.2%) 등이 감소함

<표>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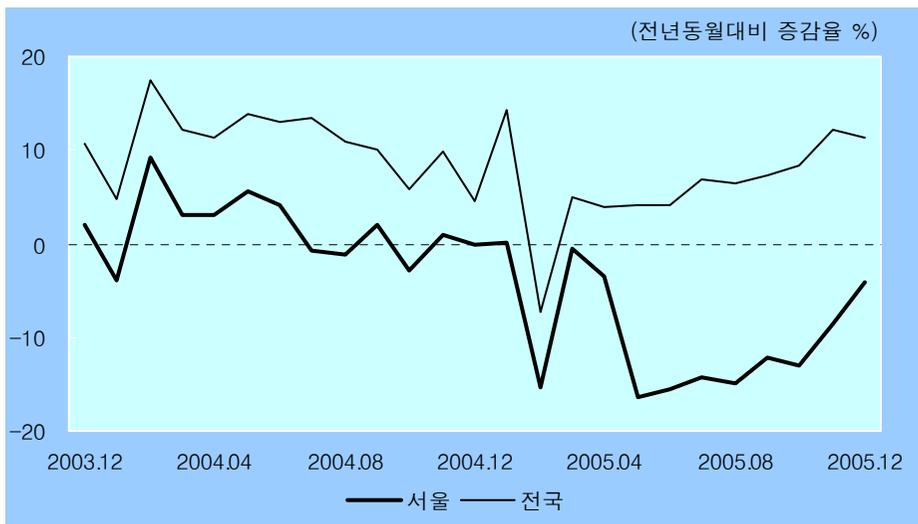
(단위: %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    | 2004.12        | 2005.8          | 2005.9         | 2005.10         | 2005.11 <sup>p</sup> | 2005.12 <sup>p</sup>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전<br>년<br>동<br>월<br>비 | 전국  | 4.6<br>(-0.8)  | 6.4<br>(-0.7)   | 7.3<br>(2.4)   | 8.3<br>(1.1)    | 12.1<br>(5.0)        | 11.3<br>(2.6)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서울  | 0.0<br>(-1.1)  | -14.9<br>(-1.4) | -12.2<br>(4.8) | -13.0<br>(-0.1) | -8.6<br>(4.5)        | -4.2<br>(2.3)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중공업 | 11.8<br>(6.5)  | -29.5<br>(-3.7) | -31.3<br>(2.8) | -39.0<br>(-3.9) | -30.6<br>(11.2)      | -25.8<br>(13.8)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경공업 | -5.7<br>(-4.9) | -7.2<br>(-3.6)  | -2.1<br>(11.8) | 1.2<br>(9.1)    | 2.6<br>(1.6)         | 8.1<br>(0.2)         |

주: ( ) 안은 전월비임,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

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(2000=100), 전월비의 중공업,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

자료: 통계청, 서울지방통계청



<그림>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

## | 출 · 하 |

##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 감소폭 축소 지속

## ■ 전국 생산자 제품출하 증가세 지속

- 전국의 생산자 제품출하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9.0% 증가하여 두 달 연속 9%대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
- 이는 수출 및 내수출하의 견실한 증가 유지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됨
- 세부업종별로 반도체(42.5%), 자동차(9.2%)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사무회계용기계(-19.0%), 비금속광물(-17.6%) 등은 감소함

## ■ 서울 생산자 제품출하 감소폭 축소 지속

- 서울의 생산자 제품출하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8.4%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5월에 비해 10%p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냄
- 전국의 생산자 제품출하가 증가세를 유지한 반면, 서울의 생산자 제품출하는 감소세를 지속하지만 그 폭이 점차 축소됨
- 이는 제조 공장 이전으로 인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부문의 출하 감소와 파주 출판 단지 조성과 관련 인쇄출판업체들 이전으로 인한 인쇄출판 부문에서의 출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반면, 계절적인 영향으로 의복 및 모피, 섬유제품 등에서의 출하 증가로 감소폭이 축소됨

## ■ 서울 경공업 생산자 제품출하 3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

-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12월 보다 35.0%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축소함
- 세부업종별로는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(-72.5%), 사무회계용기계(-19.5%) 등이 감소한 반면, 기타기계 및 장비(12.9%)는 증가함
-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12월 보다 6.8% 증가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됨
- 세부업종별로 음식료품(-32.5%), 인쇄출판(-5.6%) 등이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(24.0%), 섬유제품(15.4%) 등이 증가함

〈표〉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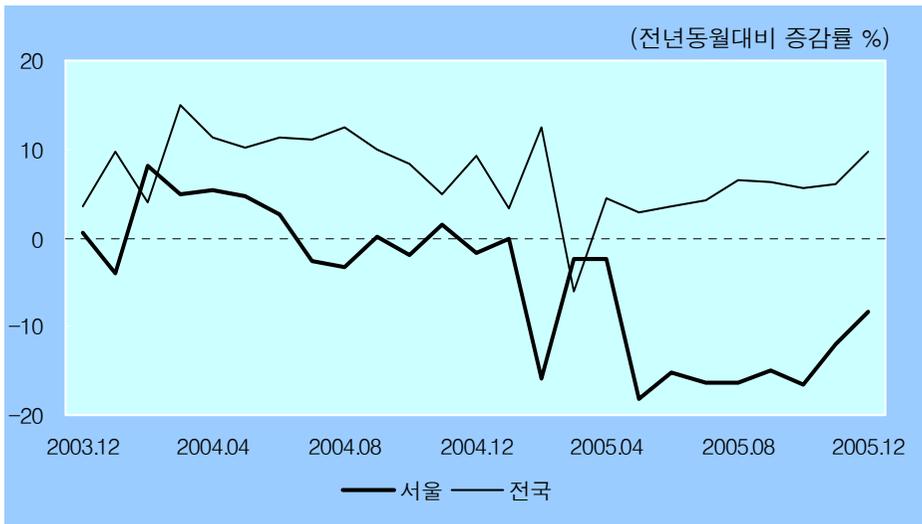
(단위: %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    | 2004.12        | 2005.8          | 2005.9         | 2005.10         | 2005.11 <sup>p</sup> | 2005.12 <sup>p</sup>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전<br>년<br>동<br>월<br>비 | 전국  | 3.3<br>(-1.9)  | 6.3<br>(-0.3)   | 5.5<br>(-0.7)  | 6.0<br>(2.1)    | 9.7<br>(4.0)         | 9.0<br>(-3.6)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서울  | -1.6<br>(-2.9) | -16.3<br>(-1.6) | -14.9<br>(4.0) | -16.5<br>(-0.7) | -12.0<br>(6.1)       | -8.4<br>(0.1)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중공업 | 7.0<br>(1.5)   | -35.3<br>(1.2)  | -36.9<br>(2.2) | -46.2<br>(-5.5) | -40.2<br>(7.2)       | -35.0<br>(10.3)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경공업 | -6.1<br>(-1.6) | -5.1<br>(-3.0)  | -2.1<br>(9.8)  | 2.4<br>(8.4)    | 4.3<br>(4.2)         | 6.8<br>(0.8)         |

주: ( ) 안은 전월비임,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

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(2000=100), 전월비의 중공업,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

자료: 통계청, 서울지방통계청



〈그림〉 서울과 전국의 생산자 제품출하 증감률 추이

## | 재 · 고 |

##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감소세 지속

## ■ 전국 생산자 제품재고 증가세 둔화 지속

-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3.6% 증가에 그쳐 지난해 5월 이후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임
- 반도체, 제1차금속 등의 재고가 지난달에 이어 증가된 반면, 자동차 부문의 재고는 감소폭이 확대되었음
- 세부업종별로 반도체(21.3%), 제1차 금속(20.7%) 등이 증가한 반면, 섬유제품(-11.1%), 자동차(-8.7%) 등은 감소함

## ■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감소세 지속

- 서울의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11.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
- 의복 및 모피 등에서는 증가를 보였으나, 제조 공장 이전으로 인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, 제1차금속 등에서는 감소함

## ■ 서울 중공업 생산자 제품재고 큰 폭의 감소세 지속

- 산업부문별로 중공업부문은 지난해 12월보다 42.1% 감소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-40%대의 감소세를 지속함
- 세부업종별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(-80.9%), 컴퓨터 및 사무기기(-51.0%)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타전기기계(38.7%) 등은 증가함
-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12월보다 5.3% 증가하였으나 3개월 연속 증가폭 감소가 지속됨
- 세부업종별로 의복 및 모피(8.8%), 섬유제품(5.9%), 음식료품(5.6%) 등이 증가함

〈표〉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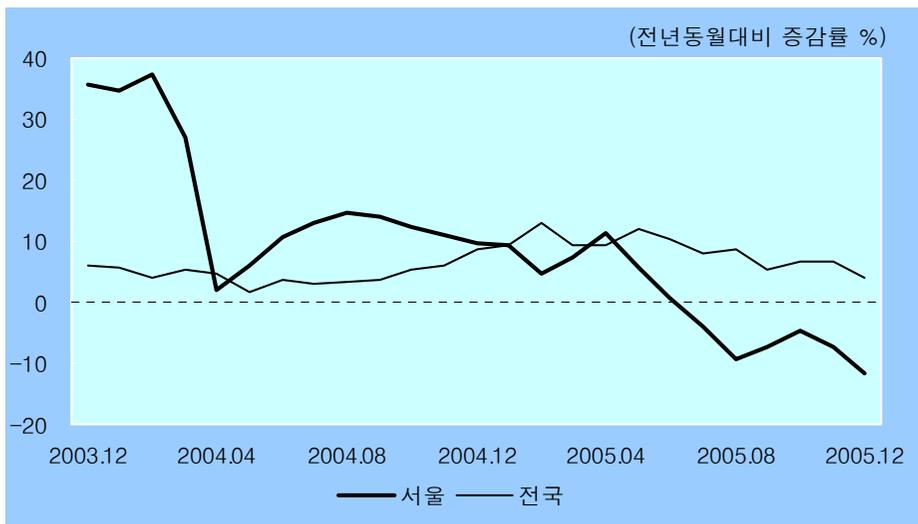
(단위: %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    | 2004.12       | 2005.8          | 2005.9          | 2005.10         | 2005.11 <sup>p</sup> | 2005.12 <sup>p</sup>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전<br>년<br>동<br>월<br>비 | 전국  | 9.4<br>(1.2)  | 5.4<br>(-2.4)   | 6.8<br>(2.6)    | 6.6<br>(0.2)    | 4.0<br>(-0.6)        | 3.6<br>(0.6)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서울  | 9.8<br>(2.2)  | -9.3<br>(-2.4)  | -7.4<br>(4.5)   | -4.8<br>(3.9)   | -7.2<br>(-0.6)       | -11.6<br>(-2.6)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중공업 | -8.3<br>(3.2) | -34.4<br>(-5.5) | -37.7<br>(-1.6) | -41.1<br>(-2.6) | -40.4<br>(2.2)       | -42.1<br>(0.2)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| 경공업 | 23.3<br>(2.1) | 3.2<br>(-2.1)   | 8.4<br>(3.2)    | 15.5<br>(2.6)   | 11.1<br>(-1.0)       | 5.3<br>(-3.2)        |

주: ( ) 안은 전월비임,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

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(2000=100), 전월비의 중공업,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

자료: 통계청, 서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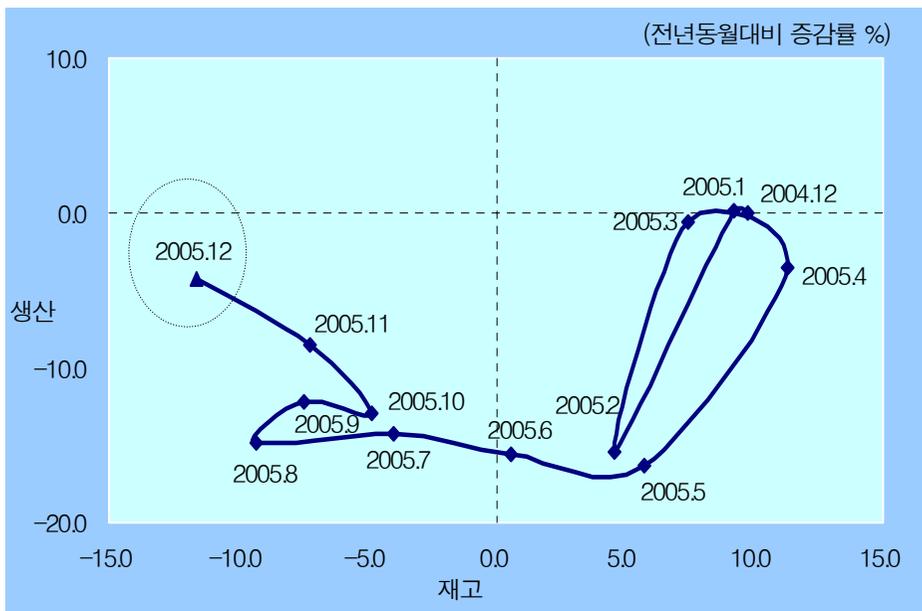


〈그림〉 서울과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

## 서울 산업생산 감소폭 둔화, 생산자 제품재고 감소세 지속

## ■ 서울의 제조업부문 미미한 호전

- 생산과 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생산의 감소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재고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의 제조업 부문은 미미하나마 경기호전세가 관측됨
- 산업생산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거나 지난달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생산자 제품재고는 중·경공업 모두의 감소로 하락세를 지속함



〈그림〉 서울의 생산·재고 증감률 추이

### ■ 서울의 12월 재고율 하락 지속

- 2005년 12월 중 전국의 재고율은 지난달 11월 보다 4.3%p 증가한 95.7%로 나타남
- 2005년 12월 중 서울의 재고율은 143.3%로 100%을 상회하고 있어 재고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2005년 10월 이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재고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됨
- 산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중공업 재고율은 109.1%로 100%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재고부담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
- 서울의 경공업 재고율은 132.9%로 100%을 상회하고 있지만 지난해 8월 이후 점차 100%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 재고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됨

〈표〉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

(단위: %)

| 구 분   |     | 2004.12 | 2005.8 | 2005.9 | 2005.10 | 2005.11 <sup>p</sup> | 2005.12 <sup>p</sup> |
|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재 고 율 | 전국  | 98.6    | 94.5   | 97.7   | 95.8    | 91.4                 | 95.7                 |
|       | 서울  | 144.9   | 147.8  | 148.8  | 155.4   | 146.0                | 143.3                |
|       | 중공업 | 109.1   | 123.7  | 121.6  | 126.2   | 120.1                | 109.1                |
|       | 경공업 | 135.5   | 163.0  | 153.6  | 144.7   | 138.4                | 132.9                |

주: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(계절조정재고지수÷계절조정출하지수)×100

중공업과 경공업에 대한 재고율(재고 원지수÷출하 원지수)×100,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

자료: 통계청, 서울지방통계청

## | 소 · 비 |

## 서울의 백화점 판매 큰 폭 증가

## ■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큰 폭 증가

-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4조 원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17.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주된 요인으로는 고급 의류, 운동·오락용품, 화장품 등에서 판매호조를 보인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
## ■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큰 폭 증가

-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 4천만 원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22.2% 증가함
- 이는 서울 백화점부분의 경우, 연말 정기세일에 따른 의복 및 가방, 운동관련 상품 등의 수요증가 영향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27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- 또한 서울 대형할인점의 경우는 서적문구 및 운동 관련 상품 수요증가와 통신기기, 컴퓨터 및 귀금속류의 판매증가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16.7% 증가한 것에 기인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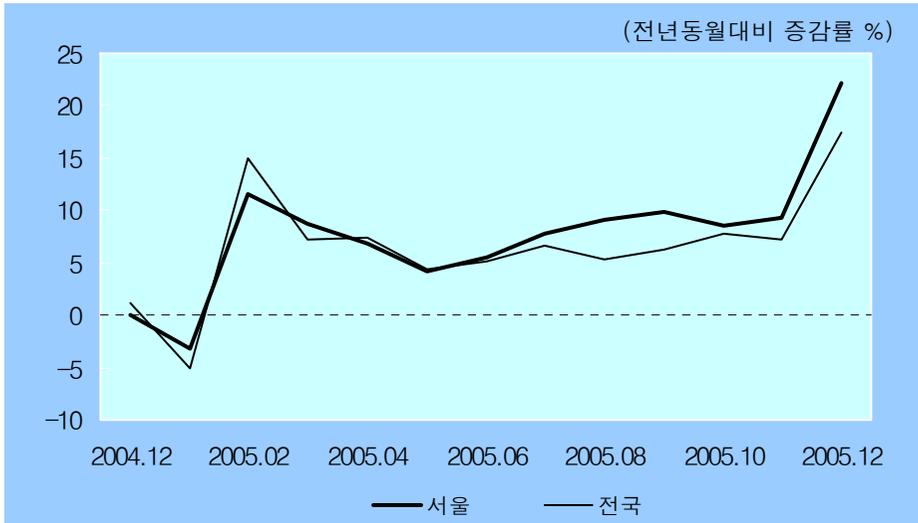
〈표〉 대형소매점 판매 동향

(경상금액, 단위: 십억 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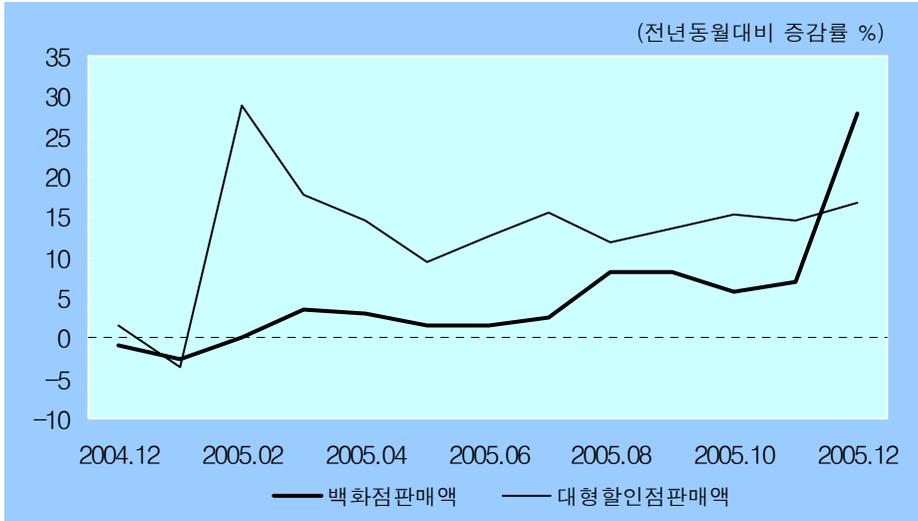
| 구 분 |       | 2004.12        | 2005.8         | 2005.9         | 2005.10        | 2005.11        | 2005.12        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판매액 | 전국    | 3,482<br>(1.2) | 3,078<br>(5.3) | 3,735<br>(6.2) | 3,631<br>(7.8) | 3,519<br>(7.3) | 4,088<br>(17.4) |
|     | 서울    | 1,178<br>(0.1) | 1,001<br>(9.1) | 1,216<br>(9.9) | 1,257<br>(8.6) | 1,180<br>(9.3) | 1,439<br>(22.2) |
|     | 백화점   | 700<br>(-0.9)  | 506<br>(8.3)   | 649<br>(8.2)   | 758<br>(5.7)   | 682<br>(6.9)   | 895<br>(27.8)   |
|     | 대형할인점 | 438<br>(1.6)   | 464<br>(11.9)  | 536<br>(13.7)  | 471<br>(15.3)  | 473<br>(14.7)  | 512<br>(16.7)   |

주: ( ) 안은 전년동월비임 ,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,000m<sup>2</sup> 이상인 소매점임

자료: 통계청, 서울지방통계청



<그림>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



<그림>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

## | 취·업·자 |

## 서울의 취업자 소폭 감소

## ■ 전국의 취업자 소폭 감소

- 2006년 1월 중 전국의 취업자는 22,471천명으로 지난달 12월에 비해 1.0% 감소하여 고용여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음
- 그 주된 원인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농림어업,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고용개선이 지연되기 때문으로 분석됨
- 연령별로 청년층(15~29세) 취업자는 4,425천명으로 지난달 12월에 비해 1.6%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고령층(55세 이상) 취업자는 3,532천명으로 지난달 12월에 비해 3.9% 감소함

## ■ 서울의 취업자 소폭 감소

- 2006년 1월 중 서울의 취업자는 4,897천명으로 지난달 12월에 비해 0.8% 감소하였으며 이의 주된 원인으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이 높은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의 감소에 기인함
- 성별로는 지난달 12월에 비해 남성이 2,804천명으로 1.0% 감소하고, 여성도 2,093천명으로 0.6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하였는데 이는 계절적인 영향을 받은 건설업 등에서의 고용 여건 부진 때문으로 분석됨
- 청년층(15~29세) 취업자는 지난달 12월에 비해 0.8% 증가한 1,115천명으로 이는 서울 취업자의 감소와는 달리 소폭의 청년층 고용여건의 개선이 나타나지만 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임
- 고령층 취업자는 668천명으로 지난달 12월에 비해 2.5% 감소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취업대책의 부족으로 정점과 저점의 잦은 순환 주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

<표> 2006년 1월 고용동향

(단위: 천명, %)

| 구 분        |    | 2005.1 | 2005.9 | 2005.10 | 2005.11 | 2005.12 | 2006.1 | 전월비   |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|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증감    | 증감률     | 증감   | 증감률    |       |
| 취업자        | 전국 | 22,078 | 23,048 | 23,186  | 23,191  | 22,699  | 22,471 | -228  | (393)   | -1.0 | (1.8)  |       |
|            | 서울 | 4,796  | 4,877  | 4,919   | 4,960   | 4,938   | 4,897  | -41   | (101)   | -0.8 | (2.1)  |       |
|            | 성별 | 남자     | 2,791  | 2,797   | 2,818   | 2,857   | 2,833  | 2,804 | -29     | (14) | -1.0   | (0.5) |
|            |    | 여자     | 2,005  | 2,079   | 2,102   | 2,103   | 2,106  | 2,093 | -13     | (88) | -0.6   | (4.4) |
| 청년층<br>취업자 | 전국 | 4,544  | 4,351  | 4,378   | 4,356   | 4,354   | 4,425  | 71    | (-11.9) | 1.6  | (-2.6) |       |
|            | 서울 | 1,141  | 1,090  | 1,106   | 1,108   | 1,106   | 1,115  | 9     | (-28)   | 0.8  | (-2.3) |       |
| 고령층<br>취업자 | 전국 | 3,406  | 4,024  | 4,057   | 3,988   | 3,675   | 3,532  | -143  | (128)   | -3.9 | (3.7)  |       |
|            | 서울 | 632    | 683    | 683     | 690     | 685     | 668    | -17   | (38)    | -2.5 | (5.7)  |       |

주: ( ) 안은 전년동월비임, 청년층 취업자는 15세~29세임,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 
 자료: 통계청, 서울지방통계청

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, 광공업 감소세

- 2006년 1월 중 서울의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 및 광공업이 지난달 12월에 비해 15천명(-1.9%) 감소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4천명 감소(-1.8%)함
-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-1.2%)과 도소매·음식숙박업(-0.9%)의 감소에 기인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이 4,134명으로 지난달 12월에 비해 0.6% 감소함

■ 전문·기술·행정관리자, 기능·기계조작·조립·단순종사자 감소세

- 2006년 1월 중 서울의 직업별 취업자는 지난달 12월에 비해 전문·기술·행정관리자가 14천명(-1.0%), 기능·기계조작·조립·단순종사자가 13천명(-0.9%) 감소함
- 종사상 지위별로는 지난달 12월에 비해 상용근로자는 22천명(1.3%), 일용근로자는 6천명(1.0%) 증가한 반면, 임시근로자는 55천명(-4.1%)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전체로는 28천명(-0.8%) 감소세를 보임
-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, 무급가족종사자가 지난달 12월에 비해 각각 12천명(-1.1%), 2천명(-0.7%) 감소하여 비임금근로자 전체로는 14천명(-0.8%)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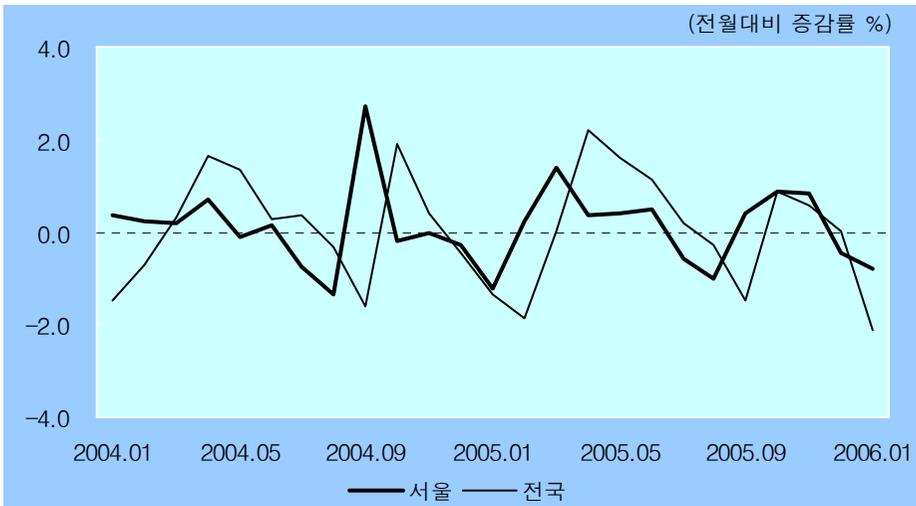
<표> 2006년 1월 서울시 고용동향

(단위: 천명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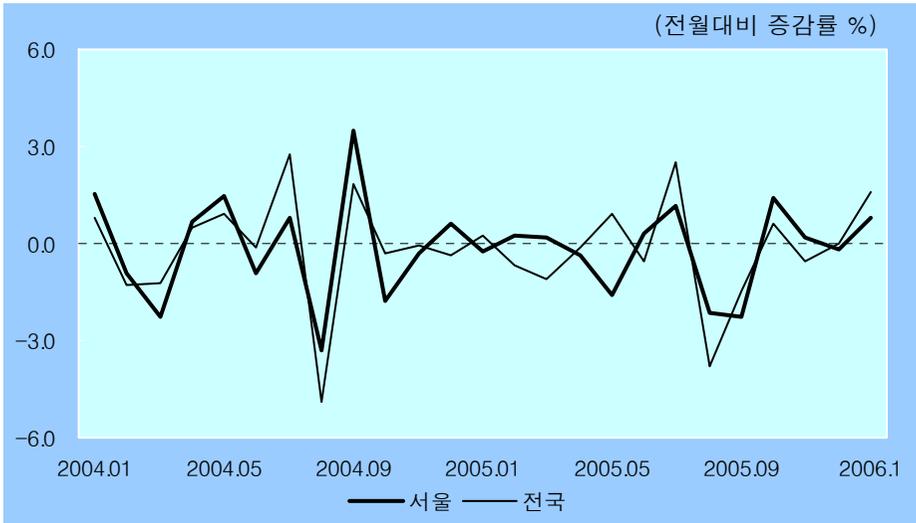
| 구 분        | 2005.1              | 2005.9 | 2005.10 | 2005.11 | 2005.12 | 2006.1 | 전월비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|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증감    | 증감률       | 증감           | 증감률 |  |
| 산업별<br>취업자 | 농림어업 및 광공업<br>· 제조업 | 792    | 782     | 791     | 788     | 778    | 763   | -15 (-29) | -1.9 (-3.7)  |     |  |
|            | SOC 및 기타서비스업        | 778    | 775     | 783     | 779     | 771    | 757   | -14 (-31) | -1.8 (-4.0)  |     |  |
|            | · 건설업               | 4,004  | 4,095   | 4,128   | 4,172   | 4,160  | 4,134 | -26 (130) | -0.6 (3.2)   |     |  |
|            | · 도소매·음식숙박          | 397    | 412     | 415     | 412     | 410    | 411   | 2 (14)    | 0.4 (3.4)    |     |  |
|            | ·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       | 1,433  | 1,421   | 1,427   | 1,426   | 1,447  | 1,433 | -14 (0)   | -0.9 (0.0)   |     |  |
|            | ·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       | 1,649  | 1,753   | 1,774   | 1,806   | 1,773  | 1,753 | -21 (104) | -1.2 (6.3)   |     |  |
|            | · 전문·기술·행정관리자       | 525    | 510     | 512     | 529     | 531    | 538   | 7 (13)    | 1.3 (2.4)    |     |  |
| 직업별<br>취업자 | 전문·기술·행정관리자         | 1,432  | 1,439   | 1,453   | 1,455   | 1,456  | 1,442 | -14 (10)  | -1.0 (0.7)   |     |  |
|            | 사무종사자               | 736    | 758     | 769     | 797     | 804    | 795   | -9 (59)   | -1.1 (8.0)   |     |  |
|            | 서비스·판매종사자           | 1,260  | 1,258   | 1,272   | 1,270   | 1,262  | 1,259 | -3 (-1)   | -0.3 (-0.1)  |     |  |
|            |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       | 3      | 4       | 5       | 6       | 6      | 5     | -2 (2)    | -29.7 (60.7) |     |  |
|            | 기능·기계조작·조립·단종종사자    | 1,365  | 1,418   | 1,421   | 1,431   | 1,410  | 1,397 | -13 (32)  | -0.9 (2.3)   |     |  |
| 종사상<br>지위별 | 비임금근로자              | 1,368  | 1,359   | 1,355   | 1,385   | 1,370  | 1,356 | -14 (-11) | -1.0 (-0.8)  |     |  |
|            | 임금근로자               | 3,428  | 3,518   | 3,564   | 3,575   | 3,568  | 3,541 | -28 (113) | -0.8 (3.3)   |     |  |

주: 청년층 취업자는 15세~29세임,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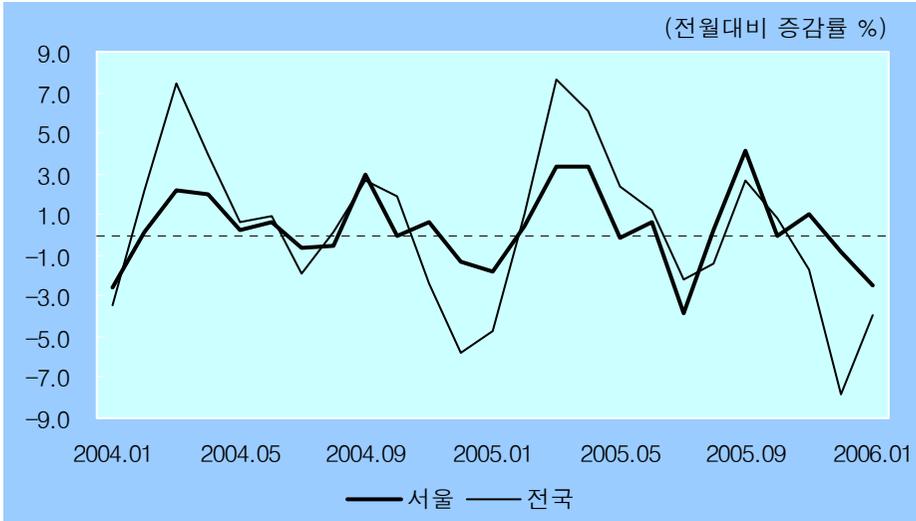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서울지방통계청



<그림>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



<그림>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(15~29세) 취업자 증감률 추이



<그림>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(55세 이상) 취업자 증감률 추이

## | 실 · 업 · 률 |

## 서울 실업률 지난 12월에 비해 증가

## ■ 전국의 실업률 소폭 증가

- 2006년 1월 중 전국의 실업자는 869천명으로 지난달 12월에 비해 5.1% 증가하여 2005년 11월 이후 두 달 연속 5%대의 증가세를 나타냄
- 실업률도 3.7%로 지난달 12월에 비해 0.2%p 증가한 것으로 3개월 연속 0.2%p의 상승률을 나타냄

## ■ 서울의 실업률 소폭 증가

- 2006년 1월 중 서울의 실업자는 253천명으로 전국 대비 29.1%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지난달 12월에 비해 5.7% 증가하여 전국보다 0.6%p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는 전국보다 서울의 경제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
- 실업률도 4.9%로 지난달 12월에 비해 0.3%p 증가하여 전국 대비 1.2%p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서울의 고용여건이 전국보다 어려운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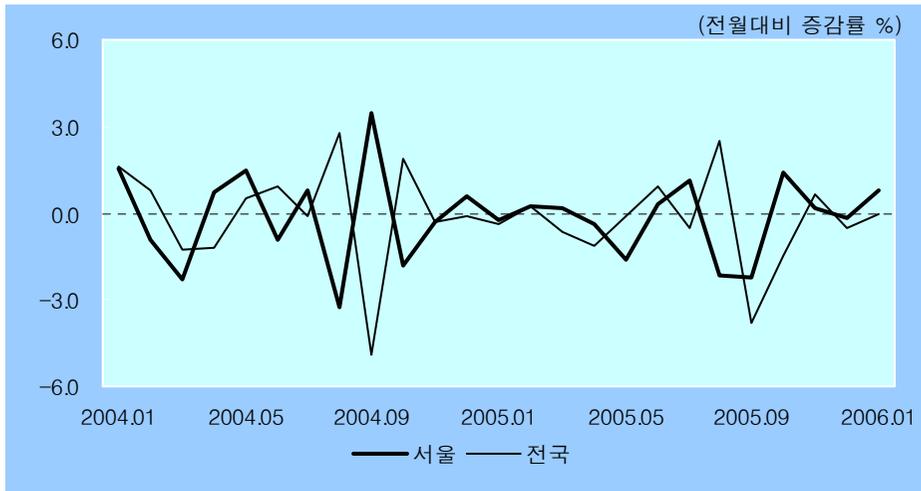
〈표〉 2006년 1월 실업동향

(단위: 천명, %, %p)

| 구 분 |     | 2005.1 | 2005.9 | 2005.10 | 2005.11 | 2005.12 | 2006.1 | 전월비 |        |     |         |
|-----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|
|     |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 증감  | 증감률    |     |         |
| 전국  | 실업자 | 980    | 870    | 870     | 785     | 827     | 869    | 42  | (-111) | 5.1 | (-11.3) |
|     | 실업률 | 4.2    | 3.6    | 3.6     | 3.3     | 3.5     | 3.7    | 0.2 | (-0.5) | -   | (-)     |
| 서울  | 실업자 | 276    | 240    | 241     | 222     | 239     | 253    | 14  | (-23)  | 5.7 | (-8.3)  |
|     | 실업률 | 5.4    | 4.7    | 4.7     | 4.3     | 4.6     | 4.9    | 0.3 | (-0.5) | -   | (-)     |

주: ( )안은 전년동월비임

자료: 통계청, 서울지방통계청



<그림>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

<Box> 서울시, 취업정보 포털사이트 상설화

▶ 온라인 취업정보센터(<http://job.seoul.go.kr>) 오픈 (2006년 1월 19일)

- 서울시는 2005년 12월 서울시 온라인 취업박람회 개최시 구축했던 온라인 취업사이트를 상설 운영체제로 전환하여 2006년부터 구인기업 및 구직자에게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힘
- 사이트의 명칭은 "서울특별시 취업정보센터(<http://job.seoul.go.kr>)" 임
- 주요 메뉴는 채용정보, 인재정보, 취업도우미, 취업네트워크, 창업정보, 개인 및 기업 정보, 고객센터 등으로 구성됨
- 그 밖에 고령층, 장애인 및 여성 구직자 등을 위한 배너도 별도 설치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
- 외국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를 위한 배너(해외취업지원센터)도 설치함
- 본 사이트에 게재되는 취업정보는 (주)잡링크 및 자치구 취업정보은행에서 제공하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등 일반기업 취업정보와 서울시 고용대책과에서 게재하는 서울사·자치구 산하기관, 국가기관 및 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 취업정보로 이루어짐

▶ 100개 공공기관 취업정보 특화 운영

-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100개 공공기관 취업정보(서울시 자치구 35개, 국가기관 37개, 투자기관 등 28개)를 특화 운영하여 구직자들이 수도권 공공기관의 모든 취업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함

▶ "서울특별시 취업정보센터" 취업사이트의 특징

- 서울시 홈페이지에 취업 관련 포털사이트를 링크하여 구인 구직자들을 상설적으로 연결시켜 연중 박람회를 개최하는 역할을 수행함
- 수도권 공공기관 취업정보를 특화하여 구직자들이 여타 공공기관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본 사이트에서 다양한 공공기관의 취업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
- 각 자치구 취업정보은행 담당자 등이 발굴한 구인기업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함

## | 물 · 가 |

## 서울 소비자 물가 소폭 상승

## ■ 전국 소비자 물가 소폭 상승

- 2006년 1월 중 전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12월에 비해 0.8% 상승하여 2005년 3월 이후 연중 최고치를 기록함
- 이는 한파와 설수요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였고 공공서비스 물가도 소폭 상승한 데 기인함

## ■ 서울 소비자 물가 소폭 상승

- 2006년 1월 중 서울의 소비자물가도 지난달 12월에 비해 0.7% 상승한 것으로 이는 2005년 1월에 비해서도 0.1%p 높은 수치임
- 이는 한파로 채소류의 출회가 감소하고 설수요가 증가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오르고 도시가스 및 전기료가 인상한 것에 기인함

## ■ 서울 소비자 물가 상품성질별 부문 상승

- 상품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지난달 12월에 비해 3.3% 상승하여 전체 상품 부문이 1.1% 상승함
- 또한 도시가스(5.4%), 전기료(2.3%), 상수도료(2.1%)가 오른 공공서비스가 지난달 12월에 비해 1.6% 상승하여 서비스 부문이 전체적으로 0.5% 상승함

## ■ 서울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상승

-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12월에 비해 1.2% 상승하여 지난해 9월 이후 또 다시 1%대의 상승률을 나타내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서민 부담에 가중될 것으로 분석됨
- 신선어개·채소·과실 등 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 12월에 비해 5.7% 상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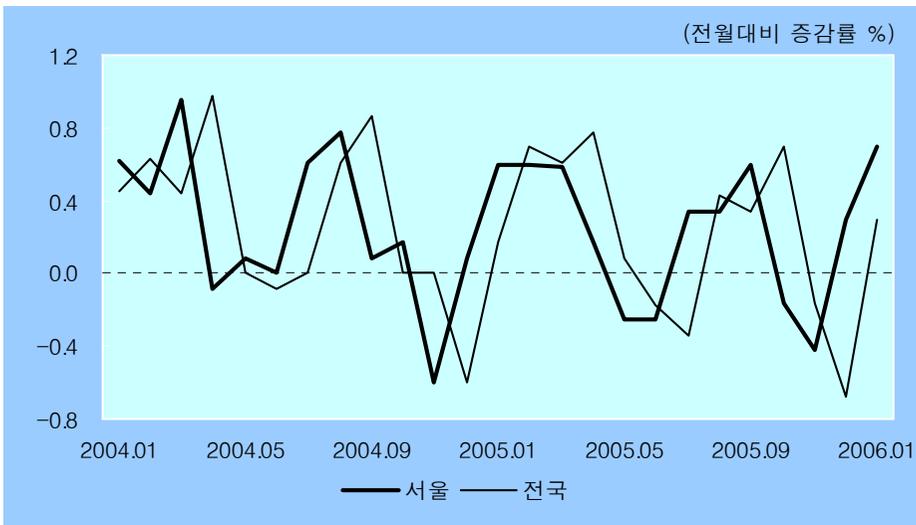
〈표〉 소비자 물가 동향

(2000=100, 단위: %)

| 구 분 |           | 2005.1       | 2005.8        | 2005.9       | 2005.10       | 2005.11       | 2005.12       | 2006.1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전월비 | 전국        | 0.7<br>(3.1) | 0.3<br>(2.0)  | 0.7<br>(2.7) | -0.2<br>(2.5) | -0.7<br>(2.4) | 0.3<br>(2.6)  | 0.8<br>(2.8) |              |
|     | 서울        | 0.6<br>(3.2) | 0.3<br>(1.9)  | 0.6<br>(2.4) | -0.2<br>(2.0) | -0.4<br>(2.2) | 0.3<br>(2.5)  | 0.7<br>(2.5) |              |
|     | 상품<br>성질별 | 상품           | 1.2<br>(3.8)  | 0.6<br>(2.1) | 1.5<br>(3.5)  | -0.3<br>(2.8) | -1.5<br>(2.8) | 0.7<br>(3.6) | 1.1<br>(3.5) |
|     |           | 서비스          | 0.2<br>(2.8)  | 0.1<br>(1.6) | 0.0<br>(1.6)  | 0.0<br>(1.6)  | 0.3<br>(1.8)  | 0.1<br>(1.6) | 0.5<br>(1.9) |
|     | 생활물가      | 1.0<br>(5.1) | 0.5<br>(2.9)  | 1.1<br>(3.8) | -0.2<br>(3.2) | -0.8<br>(3.5) | 0.5<br>(4.0)  | 1.2<br>(4.2) |              |
|     | 신선식품      | 2.7<br>(0.8) | 3.8<br>(-3.4) | 5.8<br>(4.1) | -1.5<br>(0.3) | -8.2<br>(0.6) | 3.7<br>(6.2)  | 5.7<br>(9.3) |              |

주: ( ) 안은 전년동월비임

자료: 통계청, 서울지방통계청



〈그림〉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

## | 시 · 중 · 자 · 금 · 사 · 정 |

원/달러 환율 큰 폭으로 하락

## ■ 국고채 유통수익률 큰 폭으로 하락

- 2006년 1월중 국고채(3년) 유통수익률은 지난달 12월 대비 0.16%p 하락한 4.92%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내 경기지표 호조, 미국 시장금리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하락, 장기투자기관의 적극적인 매수 등에 기인함
- 회사채 수익률(3년)은 지난달 12월에 비해 0.1%p 하락한 5.42%를 나타내어 국고채(3년)에 이어 동반하락세를 보임
- 회사채는 장기시장금리의 하향안정으로 일부 기업의 선차환 발행이 늘어난 데다 만기도래 규모도 줄어들어 0.3조원 상승하며 소폭 순발행으로 전환됨

## ■ CD 유통수익률 상당폭 상승

- CD(91일) 유통수익률은 정책금리 추가인상 기대와 일부 은행의 CD 발행 증가 등으로 지난달 12월 말 대비 0.09%p 상승한 4.18%를 나타냄
- 콜금리(1일)는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로 3.75% 선을 유지함

## ■ 장단기 금리차 감소세 지속

- 단기금리의 동결로 인해 장·단기 금리차의 감소폭은 둔화되었으나 감소세는 지속됨

&lt;표&gt; 주요 금융지표 추이

(단위: %, %p)

| 구 분        |          | 2005.9   | 2005.10  | 2005.11  | 2005.12  | 2006.01  | 2006.02.22 | 전월비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금<br>리     | 국고채(3년)  | 4.60     | 4.95     | 5.10     | 5.08     | 4.92     | 4.82       | -0.16  |
|            | 회사채(3년)  | 5.00     | 5.34     | 5.51     | 5.52     | 5.42     | 5.28       | -0.1   |
|            | CD(91일)  | 3.93     | 3.95     | 3.95     | 4.09     | 4.18     | 4.26       | 0.09   |
|            | 콜금리(1일)  | 3.28     | 3.51     | 3.50     | 3.75     | 3.76     | 3.97       | 0.01   |
|            | 장·단기 금리차 | 1.32     | 1.44     | 1.60     | 1.33     | 1.16     | 0.85       | -0.17  |
| 주<br>가     | KOSPI    | 1,221.01 | 1,158.11 | 1,297.44 | 1,379.37 | 1,399.83 | 1,340.58   | 20.46  |
|            | KOSDAQ   | 571.95   | 587.46   | 712.39   | 701.79   | 690.24   | 660.85     | -11.55 |
| 환율(₩/US\$) |          | 1,041.10 | 1,040.20 | 1,033.50 | 1,011.60 | 964.60   | 974.70     | -47.0  |

주 : 장·단기 금리차: 국고채 - call금리. 종합주가지수, 코스닥지수,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한국은행, 산업은행

■ KOSPI 2006년 1월16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국면에 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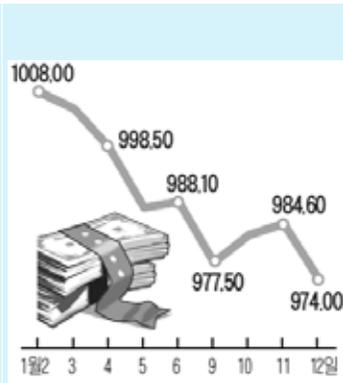
- 2006년 1월 중순경 마일 증시 하락과 유가상승 등으로 급락하였다가 국내주가의 저가 인식에 따른 외국인의 큰 폭 순매수 등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반등하여 20.46% 상승한 1,399.83을 기록함
- KOSDAQ은 지난 12월 대비 11.55% 하락한 690.24를 기록하여 11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됨

■ 원/달러 환율 급락

- 원/달러 환율은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, 엔/달러환율 하락, 수출내고자금 출회, 역외거래자의 매도세 등으로 47% 감소한 증가기준 964.60원을 기록 [<Box> 참조]

<Box>최근 원·달러 환율추이(단위 : W/US\$)

- 2006년 1월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현 수준(연 3.75%)으로 동결시킴
- 주 내용은 “최근의 환율하락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에 따른 결과이지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현재의 원화 가치 절상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다”고 평가
- 금통위에서도 올해 연평균 환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힘
-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외환시장에선 한은의 시장개입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해석이 우세해지면서 원/달러 환율의 하락 폭이 오히려 커져 외환위기 이후 원/달러 환율 최저치(974.00원)로 마감



자료 : 한국은행

■ 1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전환

- 주택담보대출은 계절적 요인 및 부동산 추가규제 가능성 등에 기인하여 0.3% 증가하였으며 1월말 잔액기준 190조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

<표> 가계대출 증감률

(단위 : %, 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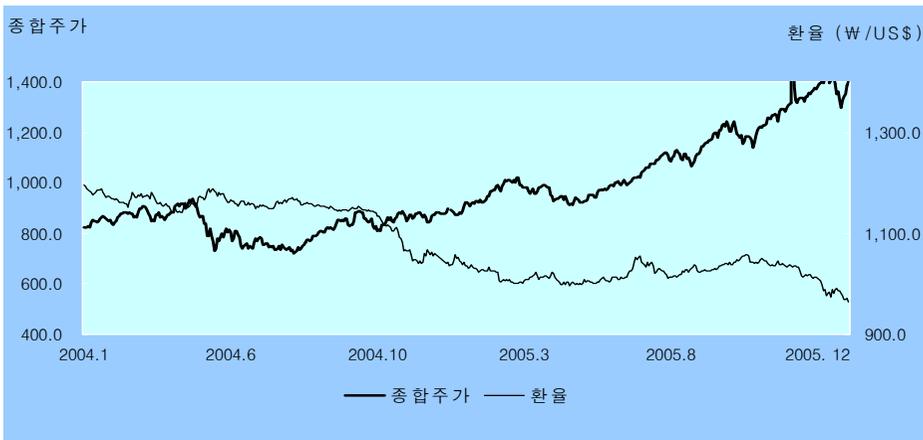
| 구 분        | 2004년 | 2005년 |      |     | 2006년 | 2006.01월 |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| 연중    | 연중    | 1월   | 11월 | 12월   | 1월       | 말잔액   |
| 가계대출       | 22.5  | 29.4  | -0.0 | 2.3 | 2.1   | -0.5     | 304.3 |
| 주택담보대출*    | 16.4  | 20.6  | 0.7  | 1.3 | 1.6   | 0.3      | 190.5 |
| 마이니스통장대출** | 7.7   | 9.2   | -0.7 | 0.9 | 0.5   | -0.7     | 112.2 |

주 : \* 주택담보대출의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, \*\* 마이니스통장대출에 주택자금대출 포함

자료 : 한국은행



<그림> 주요 금리추이



<그림>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

## | 창 · 업 · 동 · 향 |

## 서울의 신설법인 수 증가세 지속

- 전국 신설법인 수 증가 폭 확대
  - 2005년 12월 중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,388개소로 2004년 12월 대비 10.1% 증가함
  -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9.9% 증가하였으며, 제조업,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은 각각 19.8%, 3.1% 감소하여 2005년 11월에 이어 감소세가 지속됨
- 서울의 신설법인 수 건설 및 설비업을 위주로 증가세 지속
  - 2005년 12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,711개소로 2004년 12월 대비 10.2% 증가하며 증가 폭 확대
  - 이는 건설 및 설비업이 큰 폭으로 상승한 요인으로 풀이되며, 이에 반해 제조업은 2개월 연속 감소세 지속됨
- 서울의 건설 및 설비업 2005년 11월에 비해 감소
  - 2005년 12월 서울의 건설 및 설비업의 신설법인 수는 7개월째 계속되던 증가세를 접고 감소세로 반전하였으며, 세부 업종별로는 전기, 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은 각각 2005년 11월 대비 66.7%, 9.0% 감소함
-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 소폭 증가, 제조업 신설법인 수 동일
  -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(100%), 오락,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(73.9%), 교육서비스(29.4%) 등이 증가한 반면, 기타서비스(-42.4%), 부동산 및 임대업(-20.3%) 등이 감소함
  - 제조업의 세부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운송장비(200%), 목재, 가구 및 종이제품(66.7%) 등이 증가하였으며, 출판 및 인쇄업(-27.6), 전기, 전자 및 정밀기기(-13.0%) 등이 감소함

&lt;표&gt; 산업별 신설업종

(단위: 개소, %)

| 구분       | 2004.12 | 2005.09 | 2005.10 | 2005.11 | 2005.12 | 전년동월비 |       |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증감    | (증감률) | 증감률   | (증감률)   |
| 전국       | 3,986   | 3,843   | 4,025   | 4,199   | 4,388   | 402   | (189) | 10.1  | (4.5)   |
| 서울       | 1,552   | 1,594   | 1,648   | 1,699   | 1,711   | 189   | (12)  | 10.2  | (0.7)   |
| 서비스업     | 1,273   | 1,328   | 1,334   | 1,409   | 1,442   | 169   | (33)  | 13.3  | (2.3)   |
| 제조업      | 170     | 129     | 153     | 132     | 132     | -38   | (0)   | -22.4 | (0)     |
| 건설 및 설비업 | 108     | 135     | 158     | 159     | 136     | 28    | (-23) | 25.9  | (-17.4) |

주 : ()안은 전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중소기업청

## | 어 · 음 · 부 · 도 · 율 |

### 서울의 어음부도율 보합상태

#### ■ 전국의 어음부도율 지난 12월과 동일

- 2006년 1월 중 전국의 어음부도율(전자결제 조정후)은 0.02%로 지난달 12월과 같은 수준 유지함
- 교환금액은 설연휴에 따른 영업일 수 축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며, 부도금액도 지난달 12월 말일자(12.31일) 어음의 결제가 2006년 1월로 이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설자금 공급 등에 힘입어 지난달 12월보다 소폭 감소함
-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13개소로 지난 12월 대비 43개소 감소하여 11월 이후 감소세 지속됨

#### ■ 서울의 어음부도율 지난 12월과 동일

-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.01%로 3개월째 보합세 지속되었으며 부도업체수는 82개소로 지난 12월 대비 6개소 감소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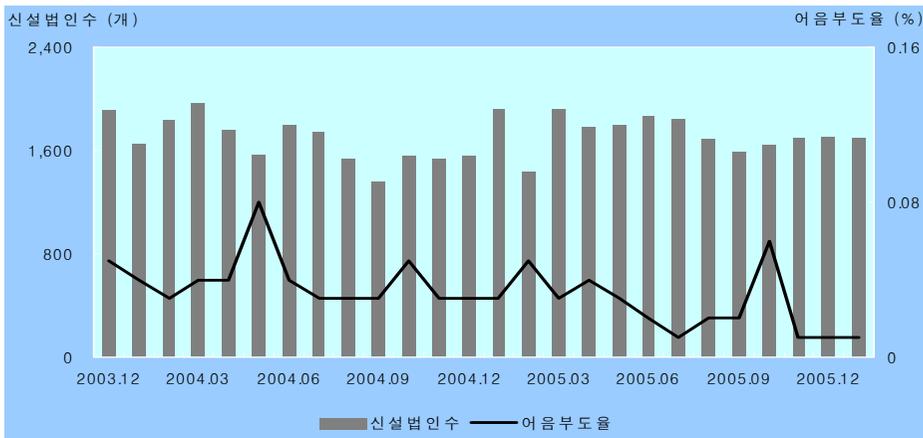
<표>산업생산 증감률 추이

(단위: 개소, %, %p)

| 구 분 | 2005.01 | 2005.10 | 2005.11 | 2005.12 | 2006.01 | 전월비 증감 |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전국  | 어음부도율   | 0.04    | 0.06    | 0.03    | 0.02    | 0.02   | 0.00 (-0.02) |
|     | 부도업체 수  | 286     | 289     | 313     | 256     | 213    | -43 (-73)    |
| 서울  | 어음부도율   | 0.03    | 0.06    | 0.01    | 0.01    | 0.01   | 0.00 (-0.02) |
|     | 부도업체 수  | 109     | 104     | 105     | 88      | 82     | -6 (-27)     |

주 :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, 부도업체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 
( )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한국은행



<그림>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

## | 신 · 용 · 보 · 증 · 동 · 향 |

### 서울시 신용보증 공급 평년수준으로 접근

#### ■ 신용보증 공급 증가세 주춤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2006년 1월 중 1,761건, 19,972백만원으로 2005년 1월에 비해 건수 186.8%, 금액 20.2% 증가하였음
-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이 당초 계획 1,000억원 중에서 1월말 현재 약 904억원이 지원되어,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전월대비 신규 보증공급 건수 및 금액은 다소 감소함
- 반면, 2006년 1월 19일 「2006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」이 공고됨에 따라 일반보증 수요는 다시 증가추세에 있음

<표> 월간 보증 추이

(단위: 건, 백만원, %, %p)

| 구 분    | 2005.01 | 2005.09 | 2005.10 | 2005.11 | 2005.12 | 2006.01 | 전년동월비<br>증감률 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건수     | 614     | 792     | 2,225   | 3,759   | 2,767   | 1,761   | 186.8 (-36.4) |
| 금액     | 16,618  | 19,650  | 30,600  | 47,033  | 32,168  | 19,972  | 20.2 (-37.9)  |
| 건당평균금액 | 27.1    | 24.8    | 13.8    | 12.5    | 11.6    | 11.3    | -15.8 (-0.3)  |

주 : ()괄호안은 전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#### ■ 음식·숙박업 비중의 지속적 증가

- 2006년 1월 31일 현재 업종별 신용보증 잔액(금액기준)은 특례보증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음식·숙박업에서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난달 12월 대비 0.3%p 증가한 반면 다른 업종은 지난달 12월과 동일하거나 다소 감소하였음

<표> 업종별 신용보증 잔액현황 (2006년 1월 31일 현재)

(단위: 개소, 백만원, %)

| 구 분 | 제조업     | 도·소매업   | 음식·숙박업  | 서비스업    | 기타     | 합계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업체수 | 4,745   | 17,993  | 9,431   | 8,574   | 2,492  | 43,235  |
| 비율  | 11.0    | 41.6    | 21.8    | 19.8    | 5.8    | 100     |
| 금액  | 108,982 | 349,010 | 141,774 | 160,253 | 50,245 | 810,264 |
| 비율  | 13.4    | 43.1    | 17.5    | 19.8    | 6.2    | 100     |

자료: 서울신용보증재단

■ 소상공인 비중의 지속적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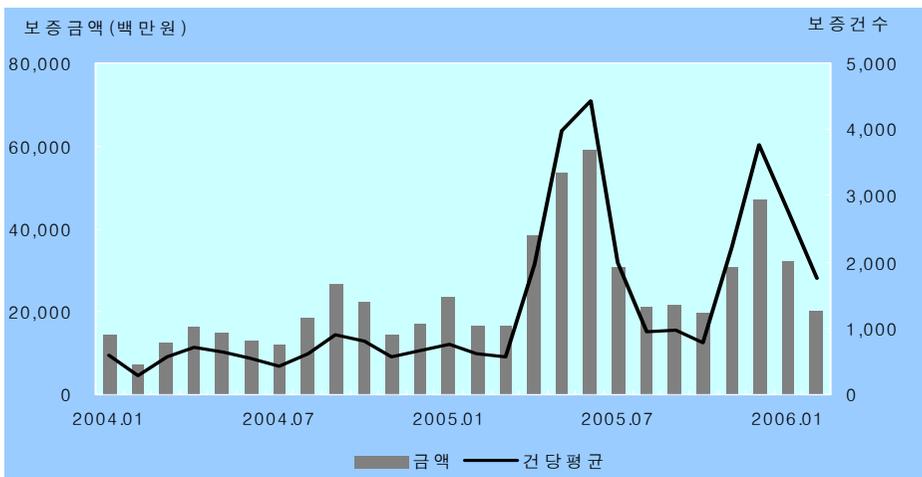
- 2006년 1월 31일 현재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잔액은 지난달 12월에 비하여 금액기준으로 0.5%p 증가한 86.0%에 이르고 있음
- 이는 특례보증의 영향 및 연초 소상공인들의 자금수요 증대로 인해 소상공인의 비중이 2005년 11월부터 꾸준히 증가한데 기인함

<표>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잔액현황 (2006년 1월 31일 현재)

(단위: 개소, 백만원, %)

| 구분   |     | 2005.11 | 2005.12 | 2006.01 | 전월비증감  |
|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소상공인 | 업체수 | 36,914  | 39,026  | 40,595  | 1,569  |
|      | 비율  | 93.0    | 93.6    | 93.9    | 0.3    |
|      | 금액  | 699,686 | 682,839 | 697,092 | 14,253 |
|      | 비율  | 84.4    | 85.5    | 86.0    | 0.5    |
| 소기업  | 업체수 | 2,548   | 2,466   | 2,444   | -22    |
|      | 비율  | 6.4     | 5.9     | 5.6     | -0.3   |
|      | 금액  | 97,505  | 92,195  | 90,627  | -1,568 |
|      | 비율  | 12.3    | 11.6    | 11.2    | -0.4   |
| 중기업  | 업체수 | 213     | 200     | 196     | -4     |
|      | 비율  | 0.5     | 0.5     | 0.5     | 0      |
|      | 금액  | 25,849  | 23,377  | 22,545  | -832   |
|      | 비율  | 3.3     | 2.9     | 2.8     | -0.1   |
| 합계   | 업체수 | 39,675  | 41,692  | 43,235  | 1,543  |
|      | 비율  | 100.0   | 100     | 100     | 0      |
|      | 금액  | 793,040 | 798,411 | 810,264 | 11,853 |
|      | 비율  | 100.0   | 100     | 100     | 0      |

자료: 서울신용보증재단



<그림>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동향

## | 수 · 출 · 입 · 동 · 향 |

### 서울의 수출액 큰 폭으로 감소

- 전국의 수출액 9개월 연속 230억 달러대 유지
  - 전국의 2006년 1월 중 수출은 2005년 1월 대비 3.8% 증가한 233억 달러를 기록함
  - 성질별로는 원료 및 연료(35.5%)와 중화학공업품(3.3%)은 증가한 반면 식료 및 직접소비재(-8.7%)와 경공업품(-7.9%)은 감소함
- 전국의 수입은 원자재 수입증가로 6개월째 220억 달러대 유지
  - 전국의 2006년 1월 중 수입은 원자재 수입증가로 인하여 지난해 1월 대비 17.3% 증가한 228억 달러를 기록함
  - 용도별로는 소비재(10.2%), 원자재(28.6%), 자본재(4.0%) 모두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, 원자재의 증가율이 두드러짐
- 서울의 수출액 큰 폭으로 감소
  - 서울의 2006년 1월 중 수출액은 2005년 1월 대비 23.4% 감소한 16억 달러를 기록함
  - 이는 선 가공기(416,398.2%), 사무용기계(841.0%)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비중 있는 품목들 대부분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결과로 풀이됨
- 서울의 수입액 증가세로 반전
  - 서울의 2006년 1월 중 수입액은 2005년 1월 대비 6.1% 증가한 42억 달러를 기록함
  - 이는 비 주류 품목들의 감소세가 있긴 했으나 비행기 및 기타 항공기(86,464.9%), 폭탄, 수류탄, 기타 총포탄(3,867%)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증가세를 보이는데 기인함

<표> 수출입

(단위: 백만불, %)

| 구 분 | 2005.01 | 2005.09 | 2005.10 | 2005.11 | 2005.12 | 2006.01 | 전년동월비증감률 |       |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전국  | 수출      | 22,454  | 24,519  | 25,353  | 25,826  | 25,632  | 23,309   | 3.8   | (-9.1)  |
|     | 수입      | 19,450  | 22,719  | 22,653  | 23,850  | 24,186  | 22,809   | 19.2  | (-5.7)  |
| 서울  | 수출      | 2,175   | 2,010   | 1,969   | 1,922   | 2,064   | 1,665    | -23.4 | (-19.3) |
|     | 수입      | 3,978   | 4,214   | 4,208   | 4,639   | 4,646   | 4,219    | 6.1   | (-9.2)  |

주 : ()괄호안은 전월대비 증감

자료 : 무역협회

## | 건 · 설 · 경 · 기 |

###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증가 폭 둔화

#### ■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하락 국면에 진입

- 2005년 12월 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과 건설발주액은 2004년 12월 대비 각각 8.0%, 16.9% 감소하여 8.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본격적인 하락국면에 진입하고 있음 <Box 참조>
- 지역별로는 대전(205.1%) 및 부산(170.5%)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, 전남도(-48.4%), 광주(-46.1%)에서 감소세를 나타냄

#### ■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증가폭 둔화

- 2005년 12월 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증가세에 이어 서울의 건축허가면적도 2004년 12월 대비 8.5% 증가함
- 이는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연립, 아파트의 건축허가면적 증가폭이 확대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나,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부진으로 증가폭은 둔화됨
- 2005년 12월 중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2004년 12월에 비해 76.5% 증가하였으며 2005년 11월에 비해서는 341.5% 증가하여 2005년 10월부터 상승세가 지속됨

<표> 건축물 허가면적

(단위: 천㎡, %)

| 구 분  | 2004.12 | 2005.09 | 2005.10 | 2005.11 | 2005.12 | 전년동월대비<br>증감률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전국   | 18,137  | 7,800   | 9,090   | 8,355   | 16,688  | -8.0          | (99.7)  |         |
| 서울   | 1,015   | 940     | 530     | 610     | 1,101   | 8.5           | (80.5)  |         |
| 주거용  | 소계      | 338     | 363     | 98      | 135     | 596           | 76.5    | (341.5) |
|      | 단독      | 13      | 9       | 9       | 13      | 11            | -12.3   | (-15.4) |
|      | 연립      | 42      | 64      | 47      | 52      | 115           | 174     | (121.2) |
|      | 아파트     | 283     | 290     | 43      | 67      | 462           | 63.1    | (589.6) |
| 비주거용 | 소계      | 677     | 577     | 432     | 475     | 494           | -27.1   | (4.0)   |
|      | 상업      | 380     | 385     | 236     | 370     | 315           | -17.1   | (-14.9) |
|      | 공업      | 35      | 17      | 30      | 8       | 27            | -22.7   | (237.5) |
|      | 문교/사회   | 203     | 113     | 151     | 75      | 86            | -57.6   | (14.7)  |
| 기타   | 59      | 61      | 15      | 19      | 65      | 9.5           | (242.1) |         |

주 : 연립은 다세대-다가구 포함, () 괄호안은 전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서울시 건축과

-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반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5년 11월에 상승세를 주도하였던 아파트가 12월에는 589.6% 상승하여 상승폭이 크게 확대됨
- 이는 정부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각종 규제책의 적용을 피하려고 미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향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
- 2005년 12월 중 비주거용 건축물의 허가면적은 2004년 12월에 비해 기타를 제외한 모든 업종들이 하락하였고, 2005년 11월에 비해서는 상업이 14.9% 감소함

■ 용산구, 광진구 등에서 건축허가면적 상승

- 2005년 12월 중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2004년 12월에 비해 용산구(20547.5%), 광진구(11348.6%), 도봉구(3815.9%) 등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여 건설경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노원구(-87.1%), 종로구(-43.8%)등에서 감소함
- 2005년 12월 중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중 상업용은 2004년 12월에 비해 23.84% 감소 추세 속에 관악구(1337.94), 노원구(267.73%) 등에서 상승하였으며 도봉구(-97.43%), 성동구(-95.39%), 등에서 감소함

■ 2005년 12월 중 건설발주액 전국/서울 모두 감소

- 2005년 12월 중 서울의 건설발주액은 1,513,908백만원으로 2004년 12월 대비 37.6% 감소함
- 전국의 건설발주액 역시 2004년 12월 대비 16.9% 감소함

■ 건설발주액 전체적으로 감소

- 8.31대책으로 민간 건설부문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공공부문의 투자부진이 겹쳐져 민간, 공공부문 발주 모두 감소하였으며 서울지역 건설발주액은 전국대비 12.0% 차지함

<표> 건설발주

(단위: 십억원, %)

| 구 분   | 2004.12 | 2005.09 | 2005.10 | 2005.11 | 2005.12 | 전년동월비<br>증감률 |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전국    | 15,161  | 5,275   | 5,343   | 6,373   | 12,596  | -16.9        | (97.6)  |
| 서울    | 2,424   | 419     | 728     | 979     | 1,513   | -37.6        | (54.5)  |
| 발주 공공 | 516     | 106     | 73      | 229     | 200     | -61.1        | (-12.6) |
| 자별 민간 | 1,789   | 311     | 631     | 700     | 1,190   | -33.4        | (70.0)  |
| 공중 건축 | 1,990   | 370     | 684     | 861     | 1,458   | -26.7        | (69.3)  |
| 별 토목  | 416     | 47      | 13      | 74      | 29      | -92.9        | (-59.9) |

주 : () 괄호안은 전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서울지방통계청

<Box> 건설투자부문 정책적 이슈

- ▶ 8.31 후속대책 추진 : 재건축제도 근본적 재검토
  - 정부는 8.31 후속대책을 마련하여 2006년 3월 중 발표예정
  -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대책(안)
    - 재건축 연한 연장, 안전진단 권한 중앙정부로 이양, 재건축개발이익부담금 신설 검토, 조합원 및 일반분양가 단일화 등
    - 임대주택확대, 청약제도개선, 분양가인하, 건설제도합리화 등 중장기 검토
- ▶ 중대형 주택의 건축비 산정기준(안) 발표('06.2.7 공청회 개최)
  - 45평형 중대형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제1안이 소형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대비 약 1.4%, 제2안은 약 3.9% 낮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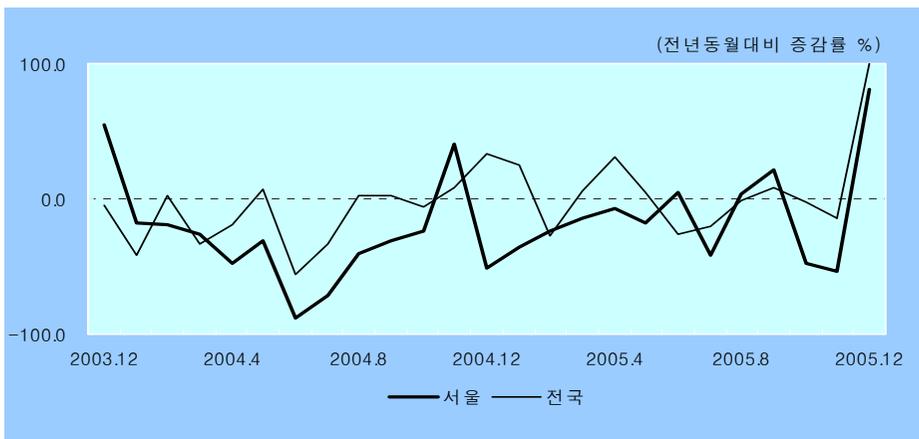
중대형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

단위 : 천원/평(공급면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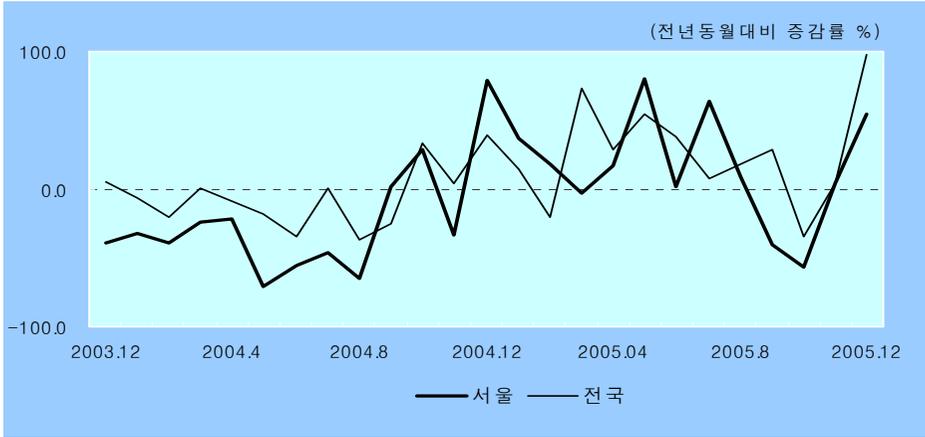
| 구분   | 40평형   | 45평형        | 55평형  | 소형주택 기본형 건축비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1안  | 3,409  | 3,346       | 3,290 | 3,397        |
| 소형대비 | 100.5% | 98.6%(△1.4) | 97.0  |              |
| 제2안  | 3,322  | 3,259       | 3,204 |              |
| 소형대비 | 97.9%  | 96.1%(△3.9) | 94.4% |              |

주 : 제1안은 초고속 정보통신(특등급), 홈네트워크 시스템(기본형) 적용하고, 제2안은 미적용  
 자료 : 중대형 주택의 건축비 산정기준수립을 위한 공청회(2006.02.07), 한국건설기술연구원

- ▶ 주택청약제도 개선
  - 정부는 2006년 6월 중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용을 계획이며,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중임
  -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대책(안)
    - 공공택지내 전용 25.7평 이하는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분
    - 가구주의 연령이나 가구 구성원수,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중치 적용



<그림> 서울과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추이



<그림> 서울과 전국의 건설발주액 추이

## | 주 · 택 · 가 · 격 |

###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확대

#### ■ 전국의 주택매매·전세가격 소폭 상승

- 2006년 1월 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2005년 12월 대비 0.3% 상승하였으며 이는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됨
- 겨울방학 이사 수요와 봄철 결혼을 앞둔 신혼가구 등의 수요증가로 2006년 1월 중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는 96.5로 2005년 12월 대비 0.4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지적으로 재건축 이주수요가 발생한 인근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

#### ■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확대

- 서울의 2006년 1월 중 주택매매가격은 2005년 12월 대비 0.6%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이는 서울의 아파트(아파트 중 대형) 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풀이됨
- 지역별로는 강남이 1.0%, 강북이 0.2% 상승하여 강남북 가격상승의 차별화가 심화됨

#### ■ 강북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

- 2006년 1월 중 강북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12월 까지 이어오던 0.1% 상승폭이 0.2%로 확대됨
- 구별 주택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인 곳은 없었으며 중랑구(0.7%), 용산구(0.6%), 성북구(0.6%) 등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여 상승세를 주도함
-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용산구(1.3%), 중구(0.8%), 마포구(0.7%)에서 상승한 반면 은평구(-0.4%), 강북구(-0.1%) 등에서 하락세 나타냄

#### ■ 강남의 주택매매가격 3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

- 2006년 1월 중 강남의 주택매매가격은 2005년 12월 대비 1.0% 상승하여 지난 11월대비 상승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강남지역 아파트는 2005년 12월 대비 1.4% 상승하여 강남북 간 상승률의 격차가 확대됨
- 구별 주택매매가격은 서초구(1.9%), 강남구(1.8%)등에서 상승을 주도하였으며 구로구(-0.1%)는 하락세를 나타냄
-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곳은 없었으며 서초구(2.4%), 강남구(2.2%) 등에서 상승세를 주도함

<표>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

(2003.0=100.0, 단위: %)

| 구 분     | 2005.01 | 2005.10 | 2005.11 | 2005.12 | 2006.01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전국      | -0.3    | 0.0     | 0.0     | 0.2     | 0.3     |
| 서울      | -0.3    | 0.0     | 0.2     | 0.4     | 0.6     |
| 아파트(서울) | -0.3    | -0.2    | 0.2     | 0.5     | 0.9     |
| 지역별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주택매매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강북      | -0.3    | 0.2     | 0.1     | 0.1     | 0.2     |
| 강남      | -0.3    | -0.2    | 0.3     | 0.7     | 1.0     |

주 : 전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■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

-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2006년 1월중 0.6% 상승하여 2005년 12월 대비 상승폭 확대되어 4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됨
- 구별로는 양천구(1.6%), 강서구(1.3%)등 주로 강남지역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유지되었으며 중랑구(-0.2%)는 하락세 나타냄

■ 아파트 전세가격 큰 폭으로 상승

- 2006년 1월 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0.9% 상승하여 2005년 12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
- 강북은 0.7%, 강남은 1.0% 상승함에 따라 강남·북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함
- 구별로는 양천구(2.5%), 광진구(1.9%), 강서구(1.6%)의 상승폭이 컸으며, 중구는 0.1% 하락세 나타냄

■ 아파트 전세가격/매매가격 비율 3개월 연속 보합세

-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/매매가격 비율은 48.4%로 3개월째 보합세가 지속되어 주택경기 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별 비율 또한 2005년 12월과 동일함

■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증가세 지속

-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전년동월대비 14% 상승하여 2005년 1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가 지속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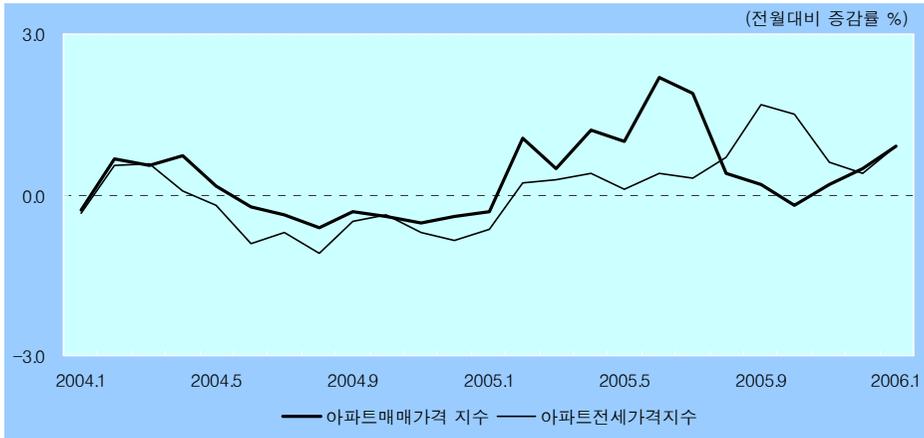
<표>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

(2003.0=100.0, 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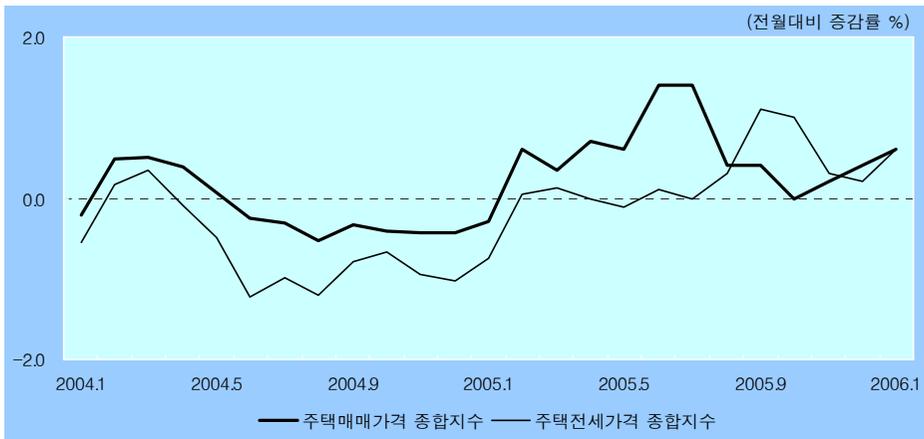
| 구 분     | 2005.01 | 2005.10 | 2005.11 | 2005.12 | 2006.01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전국      | -0.5    | 0.7     | 0.2     | 0.2     | 0.4     |
| 서울      | -0.7    | 1.0     | 0.3     | 0.2     | 0.6     |
| 아파트(서울) | -0.6    | 1.5     | 0.6     | 0.4     | 0.9     |
| 지역별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주택매매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강북      | -0.8    | 0.6     | 0.0     | 0.1     | 0.4     |
| 강남      | -0.7    | 1.3     | 0.5     | 0.4     | 0.7     |

주 : 전월대비 증감률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

<그림>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



<그림>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